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0 성모기 4 07





7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젊은 성소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MILITIA IMMACULATAE

- 7월을 시작하며 *02*
 - 탄생의신비 07
- 프란치스칸 영성 순명 **14** 반홍철
 - 축복의노래 *18*
 - 말씀무상 20
 - 님의자리 <u>22</u>
 - 북인도 이야기 23
- 나카사키에서 수도생활하기 이신형
 - 민음의 순종 37
 - 아무것도 너를… **43**
 - 함께하는 이모저모 47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굓이 되새겼다." (루카218)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7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대건안드레아

여름입니다… 물론 점점 여름이 빨라지면서 6월부터 더위가 시작되지만, 완연한 여름을 느끼는 것은 7월입니다.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더위가 시작되면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름이라는 계절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있어서 중요한 날들이 7월에 꽤 있습니다.

먼저 제 영명축일이 7월 5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첫 사제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 축일을 7월 5일로 지내게 된 것은 수도원에 입회한 뒤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수도회에 입회한 첫해에, 제 축일은 방학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방학 중에 수도회의 각 공동체로 파견을 가서 사도직 체험을 했는데, 그 때문에 정작 함께 사는 신학원 공동체 형제들에게 축일 축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서운하다고 했더니 어떤 형제들이 9월 20일 한국 순교자 대축일을 축일로 지내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청원 2년 차에 여름 방학을 앞두고 신학원장 수사님이 제게 수도원에서 어느 날을 축일로 지낼 것인지 정하라 고 하셨습니다. 순간 귀가 솔깃해서 "그래도 됩니까?"라고 반문했더니, 원장님께서는 전례력으로도 가능하고, 수도회 형제들끼리 그렇게 정해서 지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9월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네가 앞으로 계속 양성 공동체에서만 사는 것이아닐 텐데…"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길어야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학생 공동체에 있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면 굳이 방학을 피해서 9월에 축일을 지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냥 7월 5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축일은 7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천주교 신자가 자신의 본명 축일, 그리고 주보성 인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수도회 소속 의 사제로 살아가려는 저에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언제든지 저 자신의 성소를 돌아보고, 새롭게 살고자 격 려해주는 주보성인이십니다. 당연히 축일이 다가오면 그 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7월에 입대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입대일은 잊기 힘든 날일 것입니다. 제가 입대한 날은 그 해의 초복이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더웠고, 저는 삼복더위를 훈련소에서 보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군 생활을 '국방부에서 받는 수련기'라고 부르곤 하는

데, 그 시작이 바로 7월 13일이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저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7월에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보나벤 뚜라 성인의 축일인 7월 15일에 부산 대연동 성당에서, (지금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신) 정명조 주교님의 집전으로 사제직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품 기념일을 따로 지내지는 않지만, 저는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 두 해 살아가면서 수품일을 지낼 때면,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고,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해보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날들, 그리고 그 날들이 갖는 의미를 통해서 저는 7월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많이 얻게 됩니다. 더위는 싫지만, 7월은 제게 참으로 중요한 달인 셈입니다. '돌아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나온 삶을 통해 앞으로의 걸음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게 도와주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의 다른 이름이 '돌아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수련자였던 시절에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해 보라"는 질문에 대해서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돌아보는 사람" 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도 그 말이 기억나는 것은 아직도 제가 그런 모습으로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제가 묵상 안에서 만난 '김용기 대건 안드레아 수사'는, ('세속'이라는 이름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작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아래쪽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으로 계속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끊임 없이 물을 퍼내지 않으면, 바닷물이 배에 가득 들어차서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었고, 저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퍼내다 배 안에 물이 좀 줄어들 었다 싶어서, 잠시 쉬려고 하면 어느새 다시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이라는 바다에서 배로 쏟아져들어오는 물은 '내 욕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수도생활을 해 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수도생활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그 작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놓았던 것들이 어느새 다시 제 안에 들어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내 욕심과 세속적인 가치들을 퍼내면서 목표를 향해 천 천히 움직여가는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떠올리고 지금을 반성해보게 해 주는 순간들이 있 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가?", "내가 가려는 목적지는 어디이고, 나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관해서 스스로 답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기 삶의 목표와 지금의 내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돌아봄'(반성)과 '회개'(방향 설정) 안에서, 복음의 길을 따라 우리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기 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에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 기를 기도합니다. (^^)

탄생의 신비

한규희 보나벤투라

그분의 유명한 가계(족보)

마태오와 루가는 그들이 쓴 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곧 그분의 가문이 흘러온 도정을 역사적으로 제시합니다. 마태오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과 그 뒤를 잇는 일련의 유대 왕들을 거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다윗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다시 유다, 야곱, 이사악,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음 또다시 노아, 라멕, 에녹, 마침내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제시합니다.

족보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로마노 과르 디니는 저서 《주님》에서 마태오의 것은 법률상 유효한 요 셉의 족보이고, 루가의 것은 혈통의 족보, 곧 마리아의 족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 면서 특이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할머니 룻을 보 면 율법에서 엄금하는 이방인의 피가 모압 여인이었던 그 녀로부터 다윗의 혈관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의 아들 유다는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다말은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근 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유다의 가문은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에 의해 이어져가게 됩니다. 또한 살몬은 라합과의 사이에서 보아즈를 낳았습니다. 라합 역시 룻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 다윗왕은 "우리야의 아내(바쎄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는 자기 수하 장수의 아내인 바쎄바와 정을 통하고는,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간통과 살인 교사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고, 무죄하신 것 외에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고 바오로는 말 하고 있습니다(히브 4, 15 참조). 그분은 인간의 모든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족보에 이어져 내려오는 이름들은 그분 이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 시어 당신께 주어진 길을 걸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신 적이 없으 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육화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육화를 통해 교회 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또한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현재의 구속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줄 날이 밝은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한 삶

복음에서 토막토막 드러나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까지의 전 생애는 한마디로 '겸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에는 세 가지 미덕이 특별한 방식으로 수반됩니다. 즉, 가난과 인내와 순종(순명)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는 그의 저서 《해방하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스스로 가난한 이들과 하나가 되어 그 들과 함께 정의와 우애의 방향에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 여, 가난하지 않은 누군가가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 다. 예수님은 율법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히 아버지 하 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피 흘리심인 할례에서부터 성전에 봉헌되시고 정의로운 이들 과 아버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봉헌 제물이 되실 때 까지 율법에 순종(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기 위함(갈라 4, 5)"이며 "피조물 자신도 부패의 종살이로부터 하느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를 위한 해방되기(로마 8, 21)"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여 십자가의 수난을 인내하셨습니다.

겸손은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닌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소중합니다. 그리스도교적 겸손은 인간이 피조물임을 받 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피조물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사랑을 낳고 사 랑은 겸손 안에서 굳건해집니다. 예수님은 온 생애에 걸쳐 이러한 겸손과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드높은 권능

예수님의 공생활은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행동하신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사도 1, 1참조).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든 미덕의 원천인 첫번째 성사를 세례자 요한에게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하여 강물에 잠긴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정화된 다음에 "요르단 강둑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성부를, 육신을 보고 성자를, 비둘기를 보고 성령을" 알아봄으로써 그분의 드높은 권능을 느

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 물고기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마들을 몰아내시고, 온갖 병자들을 다고쳐주셨고, 눈먼 이를 보게 하시고, 귀먹은 이를 듣게 하셨습니다. 백인대장의 간청(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압니다), 하혈로 고생하는 여자의 믿음 등 복음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에 찬 기적과 가르침을 마주하게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은 '거룩한 변모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확고히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율법과 예언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부와 성령도 목소리와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권능에 찬 모습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

우리는 착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사랑 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에 대한 근심 어린 관심과 깊은 사랑, 큰 자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또한 마

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밤을 기도로 지새우시고, 회개하는 이들을 자비로이 맞이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 로 마태오와 자캐오, 그리고 그분의 발밑에 엎드린 죄 많 은 여자와 간통하다 잡혀 온 여자를 들 수 있습니다.

감미롭고 지고한 사랑을 쏟아부으시기 위해 온갖 자비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슬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라자로 때문에, 그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셨으며 그때 그분의 사랑 깊은 두 눈에서는 모든 죄를 씻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세주는 한없이 우셨습니다. 라자로의 경우에는 인간의 비참한 나약성을,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인간들의 막무가내로 닫힌 가슴을, 마지막으로는 완고하고 타락한 악의를 한탄하면서 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최후의 만찬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칫상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시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 때에 초라한 제자들과 배반자 유다와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어주셨으며, 바로 이때 예수님의 다정한 사랑은 놀랍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당신을 팔아넘길 자의 발까지 씻기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은 엄청난 것이 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은(요한 13, 1 참조) 특히 베드로에게 굳은 믿음을 가지라고 경고하 시고 요한에게 당신의 거룩한 가슴에 기대도록 하시면서 온유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덕을 확 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당신의 강렬한 사 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곳곳에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경이롭고 기쁨이 가득 찬 것인지는 주님의 장엄한 잔치에 초대받고 그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며 달려가는 이 들에게만 드러날 것입니다.

프란치스칸 영성 - 순명

반홍철 토마스 모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순명

우선 순명 생활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다함께 실천한 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형제들 사이의 봉사의 증거는 수 도생활의 특징인 공동체적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 고 있기에, 형제적 공동체 생활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 고 받아들이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어가는 탁월한 공 간이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순명은 사랑으로 생명력을 얻으며, 개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동일한 증거와 동일한 사명 안에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생활에서,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인 대화 를 나눔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통솔하는 한 사람 안에서 하느님 부성의 표현과 하느님께 받은 권위 의 수행을 함께 인정한다 그러므로 공동체 생활은 교회와 사회 앞에서 인종과 신분, 언어와 문자는 다르지만 동일한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명하려는 공통된 소망에서 생기는 유대를 보여주는 특별한 표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순명하는 사람은 '1) 주님을 따르고 2)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사심에 이끌리지 않으며, 3) 참으로 사랑을 실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성령께 인도 를 받으며, 커다란 역경 속에서도 그분의 강한 손이 붙들 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다.

매우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이 끄시는 길이라 위로하며 순명을 할 때 우리에게 희망(하느님께서 더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는 너무나 가혹하고 힘든 것이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상한 빵을 주시지 않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장은 좋아 보이더라도 결국 가서는 해로운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주시지 않으신다. 언젠가 진짜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희망이 순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성모님 또는 모든 성인과 성녀가 위대한 것은 이 믿음에 따른 순명을 하였기 때문이다. 1

결국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오롯이 순명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쉽게 거스르는가에 대해서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주신 10계명만 생각해보아도 그렇다. 우리는 계명들을 어긴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두 다리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매달려 계셨으며, 우리가 두 손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손 역시 못에 박힌 채 움직일 수조차 없으셨음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된 순명의 길을 가야하며, 그러기 위해서 더욱 작아져야 한다.

^{주)}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 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 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 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 8, 18-2224)

이렇게 겸손을 통한 순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1) 하느님을 묵상하고 - 모든 선한 것을 만드신 주인으로서 하느님을 늘 보아야 한다. 2) 그리스도를 기억해야한다.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치욕적인 죽음조차 겪으시기까지 겸손하셨다는 것. 나병환자에 비유될 정도로 낮추셨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는 사실 말이다. 3)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한다. 끝으로 순명을 하려면 순명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한다. 하느님을 사랑해야한다.

축복의 노래

김종국 요셉

태초의 생명으로 만든어진 규수강산 한반도에 님의 뜻대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부딪치고 숨 막히는 역경은 박차고 나오는 아기의 첫욱음에 당신은 사랑의 숨은 불어 넣어주시고 계셨어요

분만의 고통도 잊은 채 아기를 쓰다듬는 어머니의 미소는 비 개인 하늘의 무지개에요

아버지의 눈과 코, 어머니의 입과 귀른 빼닮아 형제들과 같은 사랑의 씨가 틀림없어요

젖은 먹다 값이 등며 실룩거리는 입숙은 평화의 세상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속삭임의 응답이에요

지독히 추운 지난 겨울에도 태양 빛으로 이 생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녹음이 짙은 지금 창공은 드높이 날으는 노란 꾀꼬리는 천사의 노래로 축하하네요

딱 젖은 노동자에게 부는 시원한 바람은 아기에게 실바람으로 붓어와요 대지를 씻어내고 힘을 북돋는 흡족한 비는 아이에게 생명수가 되어주네요

숨, 미소, 태양, 노래, 바람, 비른주시는 사랑이시어! 당신의 품안에서 등 함께 있게 하소서.

헤어짚 없이 형제애를 나누며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한반도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충추며 영원히 당신께 찬미노래 부르게 하소서.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마태 22,29)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마태 6,6)

간장종지 화가

님의 자리

박영철 요셉

님은 사랑하는 벗이여 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혼자가 아니되 혼자이었고. 기쁜이되 기쁜이 아니었고 아픔이되 아픔을 숨기고. 법이되 법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오해는 이해를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억계가는 이해가 찾아오니라 되새기고 되새기며 마음에 물잖이 생기고 되가 나도 나는 걸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멈축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방향 끝없는 길은 걷다 벗들의 이해 속에 이제야 넣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정히 이 마음 모아 부탁합니다. 있는 그대로 남은 보아주시오. 어떻게 커 가누지를 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북인도 이야기

신재희 베드로

현대의 카스트 체계

인도는 현재 법적으로는 신분제인 카스트제도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잠재해 있다. 지금은 직업이 그 계급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차역에서 대소변을 치우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불가촉천민 (untouchables)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데다가 직업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된다고 한다. 넘쳐나는 쓰레기더미에서 쓰레기를 줍고 사는 넝마주이도 그중 하나이다. 그들은 쓰레기더미 안에서 자신들의 생계거리를 찾으며 살아간다.

북인도를 여행하면서 곳곳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만날수 있었다. 누더기 같은 천에 둘둘 말려 있는 아기를 안고살아가는 가족들도 보였다. 그들은 집이 없이 이곳저곳을 구걸하며 다니다가 밤이 되면 엄청난 수의 떠돌이 개들과자리싸움을 한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공식적으로 1947년 정부 수립 후 헌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카스트제도는 피라미드식 구조 로 제일 상위부터 브라만(사제계층), 크샤(왕족·무사), 바이샤(농·공·상인) 수드라(노예계층), 크게 네 가지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복잡해진다. 그리고 이 카스트에 속하지도 못하는 계급이 불가촉천민이다. 지금은 사라졌다는 카스트제도의 실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카스트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 단위이다. 제도라기보다는 체계에 가깝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인도에서 그 제도를 폐지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생활과 문화에서는 여전히 계급이 존재한다. 카스트 체계 안에서 인간 불평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등한가! 직업이무언지 혹은 어디 살고 있는지, 집이 몇 평인지, 타고 다니는 차는 무엇인지, 저 사람이 입고 있는 또는 쓰고 있는 브랜드는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느끼며, 셀 수 없이 많은 계급을 만들어낸다.

가난한 자 프란치스코, 평등한 자 프란치스코

이러한 체계를 무너뜨리고 주님 안의 평등을 몸소 보여 주신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이라 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에게 있어 더 이상의 계층, 계급, 빈부의 차이는 존재하 지 않았다. 성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이가 되었다. 주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 이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비허(kenosis) 모습을 프란치스코는 닮고 싶어 했다. 성인은 나병환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를 체험하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날을 회상하시며, 유언에서 그 체험을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환자들을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유언 1-3)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가난한 이가 되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시대 가장 비천하고 천대받 던 나병환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 시대 나병환 자들은 불가촉천민들이었다. 몸에는 소리가 울리는 방울 을 달고 살아야 했기에 그 방울 소리가 들려오면 그와 마 주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방울 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다가가 나병환자에게 입을 맞춘다. 그리고 그 후 프란치스코는 굶주림과 가난과 먼지와 질병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닮아가는 실질적인 생활양식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를 기꺼이 견디어냈다.

성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야로 바라본다. 가난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 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오롯한 몸 바침을 통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근심을 주님 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시편 55,23)는 말씀을 이해할 때 사부님의 가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세라핌 박사이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7대 총장이 신 보나벤투라 성인의 설명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활양식인 '가난'은 현대를 살아가는 프란치스칸들을 통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현존을 드러내고 있다.

알퐁사 성당

'빠하르간지'라는 여행자 거리에서 북인도 여행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먼저 한인성당을 찾아가기 위하여 길을 나섰는데, 여행자 거리에서 한국식당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가이드북을 빌려 지하철 노선도와 지도를 보고 성당을 찾아갈 수 있었다. 물론 6개월 만에 만난 한식당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곳에서 먹은 라면과 현지 재료로 만든 김밥은 앞으로의 여행에 나설 기력을 보충하기에 충분했다.

릭사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우여곡절 끝에 성당에 도착했다. 릭사꾼들이 어찌나 다양한 이야깃거리로 사기를 치는지 조심 또 조심하라는 가이드북 설명에 따라 사기에 안 넘어가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그래도 지하철 시설은 잘 되어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인도 대도시의 지하철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내가 찾아간 알퐁사 성당은 인도의 알퐁사 성녀를 주보 성인으로 한 뉴델리 대교구 소속의 성당이었다. 우선 성모 상 앞에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앞 으로의 여행 내내 돌보아주시기를 간청했다. 이후 주임 신 부님을 만나 인사를 드렸는데, 신부님께서는 먼 길을 잘 왔다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에 참 석하기를 권하셨다.

몇 개월 만에 하게 되는 한국어 미사인지… 한국말로 그리고 한국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하는 내내 가슴이 벅찼다. 미사 후에 신부님께서 소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신자들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내 소개가 끝나고 '궁'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자매 님을 만날 수 있었다. (무슨 인연인지) 그 자매님께서는 우리 수도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에, 내 두 손을 꼭 잡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날 초대해 주셔서 신부님과 함께 자매님의 식당에 가서 식사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한국말로 말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자니 마치 한국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식사 후에 신부님과 함께 사제관으로 돌아와서는 이곳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성 당에 도둑이 들어 성합과 미사 제구들을 훔쳐 달아난 사건 이 있었다고 한다. 성합에 있는 성체를 바닥에 쏟고 급하 게 도망갔다고 한다. 그나마 그곳 마을에는 경비원들이 있 어 안전한 편이긴 했지만, 인도의 몇몇 마을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신부님께서는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제관에 방을 마련해주셨다. 그리고 그동안 아껴두셨던 음식들을 내어주시며, 이곳에 와있는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다. 남인도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인도관구 본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국을 떠나 먼 이국땅에 나가 선교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실천으로 옮기고 싶어 이곳 인도라는 나라에 왔고, 수도회에서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으며, 날마다 하느님을 향해여행하는 삶을 직접 배워나가고 있음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선교사의 삶

선교사는 내게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 삶이 숭고 하게 느껴져 항상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어떠 한 뚜렷한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바라 는 것은 아니었다. 이곳 인도 한인성당에서 사목하시는 신 부님께서도 이렇게 먼 곳에 올 줄은 몰랐다고 한다. 자신 이 원했다기보다는 주교님을 통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

신부님과 대화하면서, 어느 책에선가 선교를 떠나게 된 한 사제에 관련된 일화가 생각났다. 한 선교사가 중년의 나이가 되어 머무는 곳을 떠나 오지로 선교 나가길 원하였 다. 장상은 그 이유가 궁금해 물어보았다. 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임종을 곁에서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 멀리 타국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임종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처럼 선교를 떠난 원의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선교를 나간다는 사실이다.

선교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금 이 세상 삶 속으로 들어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곳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발돋움이다. 과거의 상황에 맞는 방식과 열정과 표현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라고 재촉한다. 하느님의 첫 부르심이 성소라면 선교는 제2의 부르심이다.

글라라회 수녀님과의 만남

신부님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또다시 북인도 여행을 위해 기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하루 전날에 내가 직접 기차 표를 예매하였는데 뭔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기차표를 구할 수 있었다. 기차 좌석에도 등급이 있어, 1AC와 2AC(에어컨이 있는 2층 침대로 독립된 객실), 3AC(에어컨이 있는 3층 침상 객실), CC(Chair Class)는 그냥 앉아서 가

는 나무 의자 칸으로 짐 놓는 선반 위로도 사람들이 올라가 자기도 한다. CC와 SL(Sleeper Class)은 에어컨이 없는 칸인데 창문도 없이 창살만 있어 출발하면 불어오는 자연바람을 맞으며 가야 한다. 나는 이 중에 SL칸을 예약했다.

뉴델리역에는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기차여행을 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사모사(감자와 야채, 카레 등을 넣은 삼 각형 모양의 튀김)를 파는 아저씨가 그곳에 있었는데 여러 개를 주문하여 아이들과 나누어 먹었다. 나에게 대화도 걸 며, 음식을 먹으면서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

내가 타야 할 기차는 저녁 10시 30분에 뉴델리역을 출발 하여 뉴잘패구리에 도착하는 기차였다. 하지만 타야 할 기차가 3시간 연착되리라는 방송이 나와서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다. 늦은 밤에 기차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얇은 천 하나를 두르고 집 보따리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 사이로 헤매고 있는 개들도 보이고, 여행하는 외국인들도 보였는데 델리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인파 가운데 수녀님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20개나 넘는 선로 위의 육교를 이리저리 걷다가 멀리서 보이는 수녀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녀님께서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를 기도드렸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내가 타고 갈 기차에 오를 수 있었다. 자리를 찾아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로 개조하고 있을때 내 앞자리에 수녀님과 십 대 중반 두 명의 소녀가 와서자리를 잡는 것이었다. 참 신기했다. 허리에 흰 끈을 단 수녀님이 프란치스칸 가족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수녀님 반가워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여 자리를 펴고 쉴 준비를 하였다. '어디를 가시기에 이 늦은 시간에 기차에 오르셨지?'하는 생각과 함께 그 많은 인파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리배치를 이렇게 하셨을까?'란 의문과 함께, 가족을 만난 것같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나가사키에서 수도생활하기 - 아시시에서 나가사키로 -

이신형 요셉

4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열쇠 꾸러미 안에서 한 개의 열쇠를 반납했다.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열쇠를 함께 반납하면, 이제 다시는 이곳에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한다. 일본 관구장님이 아시시 준관구장님께 특별히 허가를 받아 주시던가, 아니면 아시시 대수도원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수사님의 호의를 받아서 들어오는 방법밖에는 없다. 모든 열쇠를 반납하는 순간 이제 정말 나는 아시시 대수도원 식구가 아닌 그냥 한 형제로서 존재할 뿐이다.

생각해 보면, 순례자들이 넘을 수 없는 문을 넘어 대수도 원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때마다 느꼈던 자부심은 특별 했다. 사람들이 문 앞에서 동경의 대상으로 올려 보는 대 수도원이 바로 내가 사는 곳이라고, 아무나 붙잡고 들려주 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 안에 큰 바벨탑을 쌓고 살았던 듯 했다. 열쇠라는 것이 그랬다.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기에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큰 권력이기도 했다.

네 개의 열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열쇠는 공용열쇠였다. 외부에서 대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을 이 하

나의 열쇠로 다 열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방 열 쇠였다. 방 문은 열쇠 없이 닫기만 하면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나오면 다시 들어 갈 수 없었다. 4년동안 딱 한 번 책상 위에 놓고 나와 낭패를 당했던 적이 있었다. 휴게실에 있는 조금 긴 칼을 가져다 식은 땀을 흘리며 간신히 열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리스도교 문화가 자리 잡은 유럽이라서 그런지 모르 겠지만, 훌륭한 장식이 새겨져 있고 크고 묵직한 대성당 열쇠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맡겼다면, 분명 이런 열쇠라고 믿고 싶을 정도였다. 대성당 열쇠는 각 성당을 담당하는 수사님들이 관리하셨는데, 나도 부탁을 받아 몇 번 문을 열어 본 적이 있었다. 높이 3미터의 두껍고 무거운 대성당 문을 안에서 여는데, 커다란 열쇠를 깊숙이 꽂아 힘을 들여 돌리면, 철 커덕 소리와 함께 문이 서서히 열렸다. 오래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묵직하게 내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순례자들 뒤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해서 열렸다.

아시시에서의 마지막 날, 비행기에 실을 짐을 가지고 나와 대수도원 정문 사무실에 나의 마지막 열쇠를 반납했다

이제는 정말 내가 4년동안 가지고 있던 열쇠와 영원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대수도원을 뒤로 하고 내려왔다.

이때는 아시시를 떠나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했다. 정말 그랬다. 다른 사람들은 아시시를 떠나기에 기뻐하는 나를 보고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왜 그 좋은 곳에서, 뭐가 부족해서?"라는 반응이 늘 돌아왔으니까.

아시시 대수도원 형제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나에게, 아깝다는 말을 했다 외국인으로서 이제 겨 우 이탈리아 생활에 익숙해져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4년만 생활을 하고 돌아가는 게 너무 아 깝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언 어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형 제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강론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애써서 준비한다고 했지만, 정말 초 라한 수준의 강론 밖에는 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어가 되 지 않다 보니, 사제로서의 일을 할 수 없었다. 고해를 듣 을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 렇기 때문에 보통은 대성당 제대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것 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내게는 대성당 제대에 서 두 주일이나 미사를 집전할 기회가 주어졌었다. 대성당 제대에서 미사를 드리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 도 미련 없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새로운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새로 관구장으로 선출되신 신부님께서 성모기사 출판사 대표를 맡아 주었으면 한다 고 면담 때에 말씀해 주셨다. 그랬기에 머릿속으로는 어 떻게 하면 성모기사 잡지 부수를 늘릴까, 그리고 무엇을 하면 좋아질까 하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 상 발표된 인사이동은 소신학교 원장직과 함께 5개나 되 는 소임의 겸직이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인사이동을 시키려 하니, 처음의 말씀과 다르게 임명을 하시게 된 듯 했다. 그래도 임지가 내가 좋아하는 나가사키라는 점에서 아무말 않고 덥석 받았다.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날은 마침 하시구찌 신부님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로마 다빈치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하며 마음씨 좋아 보이는 남자 직원에게 '나는 사제인데, 동경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장례미사에 참석해야 하니 짐을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문제 없다는 대답과 함께 내 짐에는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딱지를 붙여 주었다.

비행기 안의 12시간이 넘는 여정은 전과 다르게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부대에서 휴가 나가는 사병처럼 아시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이 날 기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난 일본으로 향했다.

>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유학생활 끝에 일본 관구에 입회

믿음의 순종

권정대 베드로

유학 출발 전에 제 수도생활 여정에 있어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말씀과 식탁의 봉사자인 부제가 되 라는 주님의 뜻을 수도회의 허락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 다. 마침내 사부 성 프란치스코처럼 수도자인 동시에 성직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제서품에 앞서 신학교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였고, 그동안의 공부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대침 목 피정으로 찐하게(?!) 종강했습니다. 강화도 신학원 형제들 모두 함께 종강피정을 잘 마친 뒤, 파견지로 향했습니다. 파견지는 부산 일광 수도원, 그 가운데 맡은 사도직은 부산 기장 성당에서의 본당 사목 실습이었습니다.

사실 출신 본당에서 본당 사목 실습을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가 아닌 수도자가 되 어, 그리고 이제는 동시에 성직자로서의 삶을, 자라온 곳 에서 신자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참 특별한 경우이자 쉬 운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간적인 생각과 달리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많은 이를 통해 저를 도우셨고, 수 도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잘 이끌어주셨습니 다.

본당 주임 신부님을 맡고 계신 선배 수사님의 따뜻하고 진정한 사랑과 배려로 차근차근 사목 실습하면서 부제서 품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공동체 수사님들의 형제애와 기도로써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당 수녀님들을 비롯하여 신자들 또한 저를 수도자로서 그리고 사제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있음을, 신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방학 중에 잠시 본당에 왔을때는 알지 못했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당 가족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뒤, 부제서품을 위한 피정을 대전 목동에 있는 작은형제회 수련소에서 다른 5명의 사제, 부 제서품 대상자 형제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합동 서품식이었기에 의미가 남달랐고, 함께하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안에 참된 프란치스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정중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직무 사제직은 하느님께서 주신선물이시기에 그 선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잘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깊은 인상으로 남

아 있습니다.

피정 가운데 하루의 프로그램을 끝내고 성체 조배를 하면서 참으로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자 선택하셔서 부르셨음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교님과의 면담도 끝나고 마침내 서품식 날이 왔습니다. 대구대교구 계산주교좌성당에 들어가면서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온전히 당신의 뜻대로 하시고,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당신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하고 마음속 깊이 기도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랑과 기도 속에서 서품식이 끝났습니다. 서품 뒤 본당 실습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복음 을 봉독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열정과 동시에 하느 님의 말씀을 잘 외쳐 그 말씀을 잘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 일입니다.

부제로서 미사에 참여하고 강론을 하면서 진정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양들을 돌보는 착한 목자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잘 이행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샘솟는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목회, 레지오, 주일학교, 복사단, 청년회, 예비자교리 반 등 각종 모임에 부제로서 참여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사 도 바오로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1코린 9,22)

갓난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당 가족을 만나고 삶을 나누면서 사제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시는 것이기에 모든 이의 모든 것(Omnibus Omnia)이 될수 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달하고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의 본당 실습을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치고 본격적인 유학 준 비를 위해 간 곳은 관구 본부가 있는 한남동 수도원이었 습니다.

비자부터 각종 필요한 서류와 물품들을 직접 준비하고, 미리 유학을 다녀온 선배 수사님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유학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이탈리아어를 접하고 배운 적 이 전혀 없었기에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언어 공부도 했 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사 강론을 준비하고 기도에 매진하 면서 수도생활에 충실하려고 발버둥 치던 기억이 납니다.

한남동 수도원에 머물면서 형제들을 위한 양식을 마련하러 매주 한 번씩 수사님들과 함께 시장에 갔다 온 일, 형제들과 함께 수도원 뒷산에 가서 산책을 한 일, 형제들과 '부활 엠마오'를 다녀온 일이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물론 유학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앞으로 다른 나라, 전혀 다른 환경, 새로운 음식, 새로운 언어와 함께 살아갈 두려움 역시 있었습니다. 가족, 친지, 지인들 그리고 수도회 한국 관구 형제들을 떠나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니… 매일 기도 안에서 모든 것에 주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임하셨던 성모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나 자신을 다잡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을 믿는다 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이요 참으로 우리의 어머니로서 늘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자리 에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고, 알아내기 힘든 아버지 하느님의 판단과 뜻을 겸손되이 인정하면서 하느님 말씀의 진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수도자와 성직자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기다려 주 신 아버지 하느님께 성모님을 본받아 저 자신을 온전히 내 어 맡길 수 있는 확고한 희망과 굳건한 용기의 은총을 간 절히 첫합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시며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너를…

김기헌 대건안드레아

원장님으로부터 성모기사지에 투고할 글을 쓰라는 말씀을 듣고 고민이 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의탁하면서 제게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회 성소자 여름 캠프를 도울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한 동영상을 보고 수도원에 들어올 때 내 의지로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미련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당혹스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 정리된 일이라 생각했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래 바람이 쌩쌩 부는 황랑한 사막이 마음속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수도 생활에 후회가 없을 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에서 들려오는 온 갖 질문에 침묵하고 손에 묵주를 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렇게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성모님의 품 안에서 눈을 꼭 감 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마음이 잔잔해지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방심하면 악마는 언제든지 추억이라는 가면을 비롯하여 온 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께 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제게 올 죽음의 순간을 그려봤습니다. 지금이야 젊고 건강하기에 마음속의 어두운 부분들과 미련들을 외면하고 그런 것이 없는 듯 살 수 있지만, 나중에 병약해지고 죽음을 준비할 때에 그 미련과 어두움들이 모두 다 되살아난다면 감당이 될 것인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후 제가 존경하는 분의 귀천(歸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생각하니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와도 같았습니다. 이 믿음 없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한평생을 하느님 아버지께 오롯이 봉헌하시고 '나'가 없이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이셨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런 고귀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었습니다

여름휴가 때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뵙고 나서 며칠 후 돌아가셨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병실에서 뵙자마자 '하느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그 모습에서 큰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럴듯하게 보일 외모나 말솜씨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성모님을 비롯해서 성인·성녀의 삶이 그러했듯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와함께 사셨고 그분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떠올리니 제 마음에 갈피가 잡혔습니다. 오 직 아버지 하느님만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나'가 없어지고 '하느님 아버 지'로 내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지 못한 그만큼 아픔을 겪을 것이고, 아버지로 채워진 그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수도자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앓다 선종하신 그분의 삶을 통해 주 신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 습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아름다운 동화와도 같이 이 세상 을 살다가 하느님 나라로 건너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생전에 좋아했던 시를 적어봅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으로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성녀 예수의 데레사-

포르치운쿨라 전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를 받는다. 8월 2일 미사에 참석한다. 8월 2일 천사들의 성모님을 공경하는 지향으로 프란치스칸 성당 또는 본당을 방문하여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 다른 기도(주모경 등)를 바친다.

하계 수련회

성모기사회 '작은 꽃 하계 수련회'에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7월 20 ~ 22일(금요일~주일)

• 장 소: 부산 일광 삼덕 수도원

• 참가 신청 및 문의 : 최우식 프란치스코 신부

010-9502-4106

'콜베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북부지역 (양평 콜베 마을)8월 14일 (화) 저녁 7시 031−771−6138
- ●**남부지역** (대구 프란치스카눔) 8월 14일 (화) 저녁 7시 053-636-7427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 연피정







4월 9일부터 13일까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 지 두 번에 걸쳐 여주 스 승예수의 피정의 집에서 수도회 연피정이 있었습 니다. 한국 관구 수사들 이 모두 모여 기도와 묵상 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 정을 마친 수사들이 다시 각자의 사도직 속에서 변 화되고 기쁜 모습으로 살 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방문



4월 28일에 성모기사회 본부 봉사자들과 월간 성모기사 편집장 윤지영 수사는 성모의 기사 수녀님들을 만나기 위 해 대전교구 성모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중국에서 사제품을 받 으신 후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축복의 땅인 나바위 성당 을 방문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영적보조자 모임









재속프란치스코회 영적 보조자 모임이 5월 15일 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한남동 수도원 피정 집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번 모임에는 꼰벤뚜알 프 란치스코 수도회, 작은형 제회, 카푸친작은형제회 의 영적보조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모임에서는 한국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대 한 분석이 제시되었고, 참 가자들도 조를 나누어 설 문 조사 결과 내용을 토의 하고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조별 발표를 통해 나누었 습니다

꼰벤뚜알 프라치스코 수 도회 관구장 정진철 마르 코 신부는 "재속 신분으로 교회가 인준한 회칙과 회 헌 안에서 프라치스코 성 인의 복음적 삶을 서약하 고 살아가는 회원들을 위 해 우리 모두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프라치스카 수 도자로서 주님 영광을 위 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속프라치스코회 발전을 위해 힘쓰는 영적보조자 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전주지구 성모성월 피정









성모성월을 맞아 5월 5 일에 전주교구 효자동 성 당에서 성모기사회 피정 이 있었습니다 이번 피 정에는 90여 명이 참석했 습니다 오전에는 최우식 프라치스코 신부님이 집 전한 토요 성모 신심 미사 를 드렸고, 오후에는 월 간 성모기사 편집장 윤지 영 수사의 영성 강의가 진 행되었습니다 이날 참가 자들은 "워죄 없이 잉태되 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 한 콜베 성인을 본받아 성 모님의 충실한 자녀로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성모 기사회원들이 되겠다"고 굳센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결심이 변치 않도

록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 니다.







인천지구 봉헌식

2018년 5월 5일 첫 토요일에 인천지구 성모기사회원들은 토요 성모 신심 미사 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면서 성모님의 충실한 자녀로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성모기사회원이 되겠다"고 봉헌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각오가 변치 않도록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부산지구 성지순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지구 대연동 기사회 원들과 송대건 대건안드 레아 수사는 일본 후쿠오 카와 나가사키 성지순례 를 갔다 왔습니다. 참가 자들은 성모성월을 맞아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충 실한 자녀가 되겠다는 결 심을 새로이 다졌습니다. 이들의 결심이 결실을 맺 어가도록 원죄 없이 잉태 되신 성모님을 통한 하느 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 니다.













새 주소(도로명주소)로 바뀐 후 기사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사무실에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는 집에 오는 다른 우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해 주세요.

- 1) 은행에서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기
 거래하시는 은행 방문 →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 사무실 전화 (자동이체 신청 알림)
- 2)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사무실 전화 (031-771-6134) → 자동이체 신청

성소후원회

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위해 부르시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수도성소는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회칙 1장)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모든 수도 회원들은 순명, 청 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 안에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영적인 친구'를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140-002-932457 국 민: 026-01-0344-810

지 로:7620247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내용: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칸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장 성당	오후 7:30	둘째 수	051-721-2273
서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해외 선교 후원회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 가운데로 가기 원하는 형제들은 관구 봉사자들에게 갈 허가를 청할 것입니 다." (회칙 12장)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따라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도 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140-009-830476 농 협:301-0116-9633-21 국 민:295401-01-183491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053-636-7427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경당)	042-256-6562
부 산	키케 드 ^ ^l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 · 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8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9 999 999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꽃모임) 063-223-3821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 1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려요)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031601-04-200636 농 협: 317-0007-3146-21 신 한: 140-012-038430 우 리: 1005-803-349775 우체국: 102566-01-005494 하 나: 274-910011-99204

● 해외에서 송금할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8년 7월 통권 498호

발 행 인:정진철 편 집 인:구원모

편 집 인:구원모 편 집 장:윤지영

편집위원: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편 집: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인 쇄:명 조

발 행 처:재단법인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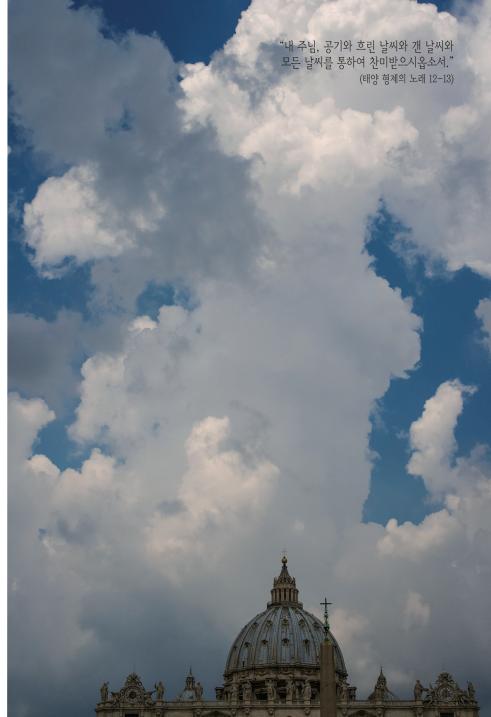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 화: 02-745-6134 (사무실)

팩 스: 02-745-6135

홈페이지: ofmconv.or.kr

전자우편: mikorea@catholic.or.kr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